

오늘의 기사관

오늘의 기사관 (7일)
▲ '미래 자산설계 및 성공 투자전략' 무료 공개 강좌=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부 '이제는 투자시대, 내게 맞는 자산설계', 제2부 '급변하는 투자환경, 성공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로 나눠 진행.

성공 투자전략 무료 강좌

리능원·김성 RPC·댓잇차 공장 등을 견학. (8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자원봉사단 발대식=오전 11시 전남도청.
▲장흥 다목적댐 준공식=오전 11시30분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장흥 다목적댐 물홍보관 광장.

(목)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이정주 초청 판소리 및 가야금 병창.
▲육군본부 군악대초청연주회=8일(목) 오후 7시30분 순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복 61주년 기념 연주회로 양악·국악·관현악·성악합연 등 연주. 문의 순천시제향군인회 061-741-2796.
▲일글사진전 '최윤규 포트리아트'=8일~14일 롯데화랑.
▲한국화 창작 실기전=9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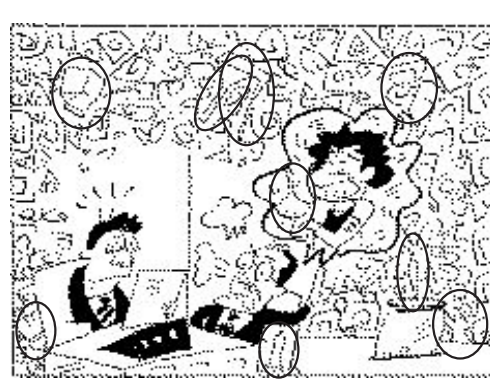
▲무등골 예술시장 프리마켓전 '푸른6월'=13일까지 일곡갤러리.
▲5·18 관련 그림 및 사진전=30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장.
▲현대사진전 '앵글의 휴머니티'=25일까지 시립미술관 분관.
▲김점수 칠예전=8일까지 무등갤러리. 칠공예를 위주로 한 다양한 작품 전시.

뉴스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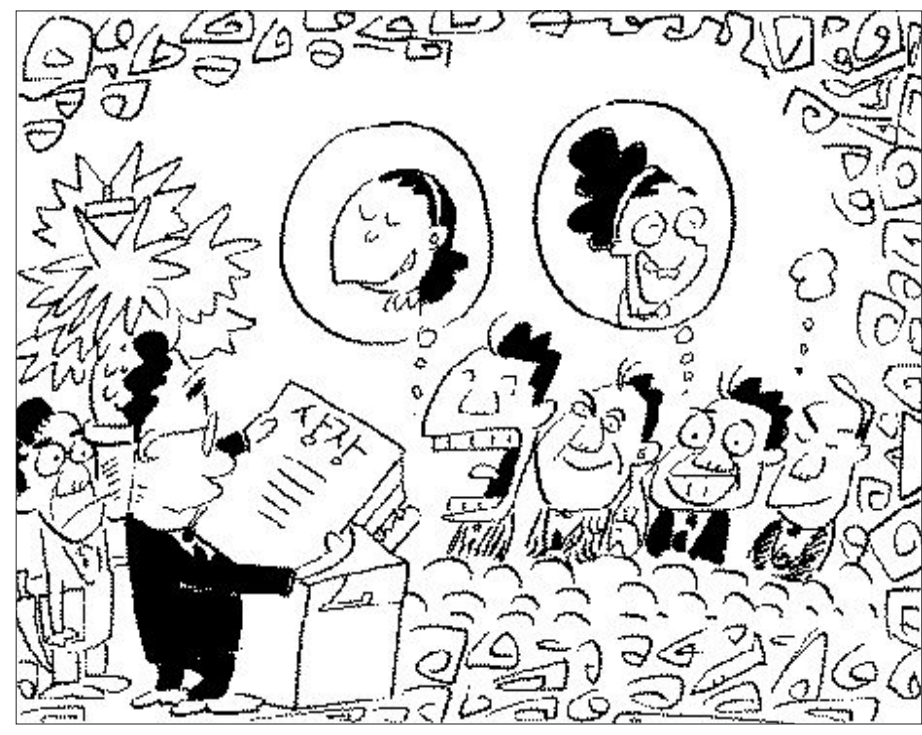
15.꿈의 축구 제전인 월드컵이 오는 10일 새벽 1시(한국시간) 개최국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달간 펼쳐집니다.
개막전이 열리는 도시는 독일 축구의 성지로 불리는 곳으로, 이 곳에 있는 경기장은 알리안츠 아레나는 FIFA 월드컵 홈페이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경기장의 하나로 꼽았을 만큼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경기장입니다.
이 곳은 어디일까요?
① 뮌헨 ② 런던 ③ 파리 ④ 도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정수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숨은그림찾기 < 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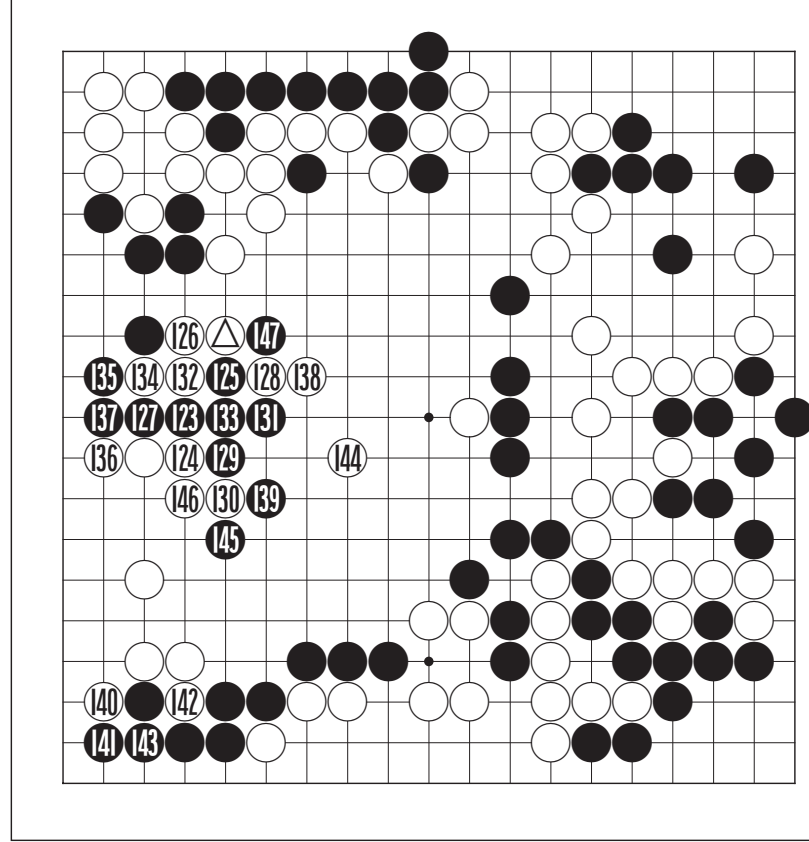


▲ 지만주 정답
열대어, 운동모자, 셔플북, 프라이팬, 고추, 은행잎, 깔대기, 우유팩, 뭇



찾아보세요 종이배, 다리미, 바늘, 음표, 펜촉, 뭇, 물고기, 팽이, 고추

공처가 포어 수상작
* 장려상 : "아내의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 동상 :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한다."
* 은상 :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금상 :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 특별상 : "너들이 아내를 알아?"
* 공로상 : "나에게 아내가 없다는 것은 저를 두번 죽이느거예요!"
* 영예의 대상 :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할것이다."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박성하·광주시 남구 진월동 조영환·담양군 남면



제15회 光日盃
위기 탈출 2회전 제9보(123~147)
백 김 영 수 (5단) <호남교사회>
흑 박 정 구 (5단) (KT-A)
백 ㉞가 두터운 수 이면서도 공격의 급소였다. 흑이 상변에서 살기는 했지만 이곳을 백에게 얻어맞아서는 어려운 바둑이 되었다.
흑 123과 125가 상대의 봉쇄를 벗어난 맥점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았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막은 뒤 3로 찢어 이어 빨리 삶을 모색해야 했다. 125로 나가는 바위에 126과 128의 호된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
김영수 5단은 공격 기회를 잡자 흑 대마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기세가 사뭇 등등하다. 그러나 130으로 137의 곳에 찢어야 했다. 132도 심한 수로 역시 137의 곳으로 찢히는 것이 좋았다.
백이 뒤늦게 136으로 후퇴했으나 흑이 145로 단수를 치게 되어 위기에 서 일단 벗어났다. 이제는 중앙에 떠 있는 흑 대마의 생각이 문제다.
<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박정상, 전자랜드배 4강 선착
박정상 6단이 지난 4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8강전에서 루이나이웨이 9단에게 140수 끝에 백 불계승을 거두어 4강에 선착했다.
박정상 6단은 최철한 9단과 최규병 9단전의 승자와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최근 대국에서 '철의여제' 루이 9단에게 4연승을 거둔 박 6단은 상대전적에서도 6승1패로 강세다.
박 6단은 지난 3일 후지쯔배 8강전에서 중국의 대표기사 창호오 9단을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올해 27시2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회 우승상금은 4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columns for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of June 7th.

굿모닝 잉글리쉬 <662>
Good for you!
정말 잘됐네!
A:I made it! Finally I made it!
B:What happened?
A:I was given the role of Hamlet!
B:Good for you! I wish you success!
A:해냈어, 드디어 해낸 거야!
B:무슨 일인데?
A:햄릿의 역할을 드디어 따냈어!
B:축하하네. 성공하길 비네!

오하이오 니혼고 <662>
よりにもよって、皆が見(み)てる前で
공교롭게도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A:足(あし)を引(ひ)きずってどうしたの?
B:あー痛(いた)い。さっき階段(かいだん)でころんだんだ。よりにもよって、皆(みんな)が見(み)てる前(まえ)で。
A:どうして? 急(いそ)いでたの?
B:うん。かいぎにおくれそうだったから、走(は)って階段(かいだん)を上(のぼ)ろうとしたら踏(ふ)み外(はず)しちゃった。なんともばつがあるくて。
A:발을 질질 끌고 왜 그래(어쩐 일이야)?
B:아, 아파. 아까 계단에서 굴렀어. 공교롭게도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A:왜? 서둘렀어?
B:응. 회의에 늦을 것 같아서. 달려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다가 헛다녔어. 정말 난처해서.....
足(あし) : 발, 다리
引(ひ)きずる : 질질 끌다. 연행하다. 억지로 끌고 가다
さっき : 아까, 조금 전
階段(かいだん) : 계단

니하오 풍구워 <380>
还谈去过
아직 못 가 보았다
A:你去过(你)光州(광주)博物馆(박물관)吗?
B:还没有去过(아직 못 가 봤어요).
A:什么时候(언제)去(가)呢?
B:太忙了(너무 바빠서).
A:那(그럼)什么时候(언제)去(가)呢?
B:不知道(몰라요).
A:那(그럼)什么时候(언제)去(가)呢?
B:不知道(몰라요).

한자 이야기 <280>
效颦(효빈)
본받을 효, 찡그린 빈
'효빈(效颦)'은 서시(西施)의 찡그리는 얼굴을 동시(東施)가 흉내내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시비와 선악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을 비유한다.
서시는 본래 춘추시대 월(越)나라의 미녀였지만, 월왕 구천(句踐)이 복수를 위하여 오왕(吳王) 부차(夫差)에게 보냈다. 그런데 서시는 가슴이 따끔따끔하는 병을 앓아 고통이 심하자, 부차가 고향에 휴양하러 보내주었다. 아름다운 서시의 모습은 고향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가슴앓이 병은 호전되지 않았다. 서시가 동네 길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니, 이를 본 동네 여인 동시가 자신도 저렇게 하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얼굴을 찡푸렸다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장자(莊子)의 '천운편(天運篇)'에 나온다. 장자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제도나 도덕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춘추시대 말기 난세(亂世)에 태어난 공자는 옛날 주(周)왕조의 이상정치를 그대로 노(魯)나라와 위(衛)나라에 재현하려 하였다. 장자는 이와같이 하는 것은 마치 춘추가 서시를 무작정 흉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한 것이다.